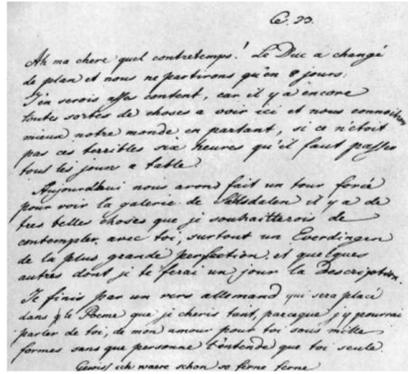


손 편지에 담긴 불후의 명작 뒷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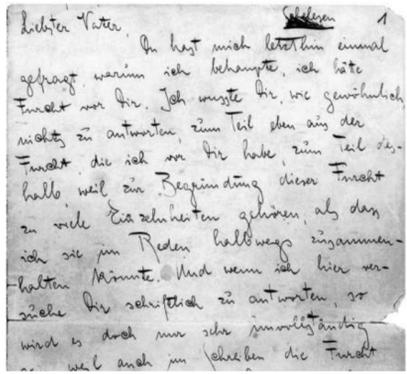
작가의 편지

마이클 버드·올렌도 보드 지음, 황종민 옮김

“급진적인 게 단지 이상일 뿐이라면, 네, 저는 급진적입니다. 모든 관점에서 늘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요구합니다. 숙업에서는 최선을 바라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고 나무라지만요. 빈곤을 용인하는 사회, 지옥을 용인하는 종교, 전쟁을 용인하는 인류는 제가 보기에 열등한 사회, 종교, 인류와 같습니다.” (빅토르 위고, 친구에게 쓴 편지 중에서)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사를로테에게 보낸 편지(왼쪽)와 프란츠 카프카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미술문화 제공>



위의 편지는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히는 빅토르 위고(1802~1885)가 친구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일부분이다. 위고는 불후의 명작 ‘레미제라블’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는 편지에서 인간의 역격을 근절하고 싶다고 말한다. 나아가 “빈곤을 몰아내고 봉매함을 교화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암흑을 밝히고, 증오를 배척할 것”이라고도 강조한다.

편지만으로도 위고가 견지했던 철학, 작가적 신념 등을 엿볼 수 있다. 민중에 대한 사랑, 불의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 물론 위고는 훌륭한 편지를 쓰기 위해 위대한 작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작가의 서신은 그 명성에 맞게 훌륭하다.

불후의 명작을 남긴 작가들의 편지가 책으로 묶였다. 제인 오스틴부터 수전 손택까지 아우르는 생생한 손글씨로 써내려간 숨은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의 편지를 통해 독자들은 소설에 얽힌 비화, 은밀한 사랑, 창작에 대한 열정 등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작가이자 미술사학자인 마이클 버드와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부편집인 올렌도 보드다.

책에는 작가 94명의 편지 94통이 수록돼 있다. 작가에는 소설가, 시인, 수필가, 극작가 등을 아우르며 편지 목적에 따라 몇 개 장로 분류돼 있다. 등장하는 작가는 언급했듯이 세계적 인물들이다. 마크 트웨인, 버지니아 울프, 마르셀 푸르스트, 헤르만 헤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제임스 조이스, 발터 벤야민, 프란츠 카프카, 허먼 멜빌, 기욤 아폴리네르, 사무엘 베케트 등 서구문학을 대표한다.

‘율리시스’의 저자 제임스 조이스는 후원금을 유혹에 허비한 적이 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해명을 한다. 비난을 인정하는 동시에 부인하며 “저는 ‘폭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고 나섰다. 한편으로 “제 머릿속은 자갈로 가득합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등 천재적인 글솜씨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도 수록돼 있다. 불같은 열정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애뜻하고 슬픈 사랑도 있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기욤 아폴리네르는 연인이 보낸 편지에 이렇게 답을 한다. “당신이 보낸 도발적인 키스가 나를 극도로 흥분”시켰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고난에 맞닥뜨린 작가의 편지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채털리 부인의 여인’을 쓴 D. H. 로렌스는 프랑스 풍자 작가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이 유망하다는 이유로 미국 세관에 압수당하자 걱정에 휩싸인다. 자신의 작품에도 성 묘사와 욕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라블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신작이 압수당하지 않도록 부탁한다. 책을 읽다 보면 위대한 작가들의 손글씨 뒤에 숨은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히로에락을 느낄 수 있다. 한편으로 편지는 곧 문학의 역사라는 사실과도 조우하게 된다.

<미술문화> 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30개 도시로 읽는 일본사=일본 신화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일본사를 총 30개 도시의 역사를 통해 풀어낸 책. 도쿄·교토·나라뿐 아니라 야마구치·마쓰야마 등 일본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도시까지 폭넓게 다룬다. 1985년에 창립한 일본의 기획·편집 집단인 조지무쇼는 도시를 일으킨 인물들의 동맹과 배신, 정권을 바꾸는 전쟁까지 다양한 일화를 소개한다.

<다산북스> 1만7500원

▲여섯 밤의 애도=임상심리학박사인 저자 고선규가 자살 사별자 다섯 명과 함께 만든 애도 안내서다. 각각 남동생, 오빠, 여동생, 아버지, 언니를 잃은 이들은 저자와 함께 여섯 밤을 보내면서 고인이 떠난 날의 이야기, 장례식 날에 대한 회고, 타인에게 죽음을 어떻게 알릴지 등 40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한겨레출판> 1만7000원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저자 캐서린 메이와 겨울을 나는 동안 일어난 일을 다룬 회고록. 남편의 수술, 갑작스런 실직, 아이의 등교 거부 등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치는 경험을 하게 된 저자는 갑작스럽게 닥쳐온 ‘인생의 겨울’ 한가운데에서 사람·동화·자연·여행 등을 통해 휴식과 겨울의 의미를 찾아나선다.

<웅진지식하우스> 1만6000원



▲동 재앙의 정치학=영국 출신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박사가 고대 로마의 폼페이, 중세의 페스트, 현대의 코로나19 등을 살펴봄으로써 재앙의 역사를 돌아본다. 저자는 과거의 전염병 또는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이나 회화 작품 등을 통해 재난과 재앙이 인류에게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한편, 근대 이후 과학의 발달에도 재난을 완벽히 예방하기는 불가능함을 언급한다.

<21세기북스> 3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만 없는 우리나라=전쟁, 내전, 종교·인종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생겨난 난민 문제를 다룬 동화책. 콩고에서 온 안나, 부모가 미얀마 난민인 세움, 시리아 내전을 겪은 하산드라는 각기 난민이 되어 한국에서 만난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난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행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일을여는책> 1만2000원

▲나는 너무 평범해=자신만 빼고 모두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초등학교생 그린이의 성장기. 어느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나에 관한 글’을 써 오라고 숙제를 내준다. 스스로를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린이는 자신이 쓴 ‘나에 관한 글’에 대해 선생님이 칭찬하자 자신감을 회복한다.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작아지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다.

<길벗어린이> 1만3000원

▲쓰레기 가족의 일기=1년 동안 쓰레기를 안 만들겠다는 도전에 나선 만화작가 베네딕트 모레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이다. 베네딕트 모레는 2015년 남편, 아이 둘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에 도전했다. 책에는 비닐 포장이나 플라스틱 포장지 쓰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스푼 쓰지 않기 등 그들의 다양한 경험이 담겼다.

<밝은미래> 1만5000원

진위와 허실 뒤범벅...유럽 문명의 민낯 드러내기

문명의 모자이크 유럽을 가다

정수일 지음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은 세계문명의 현장을 누비며 자신만의 시각으로 문명사(史)를 집필해왔다. 실크로드학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실크로드사건’으로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았고 역주서 ‘이븐 바투타 여행기’로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그의 저작은 믿고 읽는 이들이 많다.

학문이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어야하고, 그 결실은 문헌에 의한 이론 저술과 실천에 의한 허실(虛實) 검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그는 인류문명의 통로인 ‘환(環)지구적’ 실크로드를 따라 중형 세계일주를 수행했다. 문명탐사의 결과물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초원 실크로드를 가다’, ‘문명의 요람 아프리카를 가다’ 등

14년간 7권의 지역별 현장 답사실록으로 묶여 나왔다. 문명교류학 연구자 정수일이 이번에는 흔히 ‘선진문명의 대명사’로 꼽히는 ‘유럽’ 탐사에 나서 ‘문명의 모자이크 유럽을 가다-1 북유럽’을 펴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어느 순간 ‘중심문명’으로 둔갑한, ‘유럽문명의 민낯 드러내기’를 책의 화두로 감히 잡아 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술하게 출판된 어느 유럽 관련 책들과는 ‘다른 시각’의 글임을 예감할 수 있다.

여든이 넘는 그는 지난 2017년 북유럽 덴마크에서 출발, 시애틀을 방향으로 동유럽과 중유럽 서유럽의 15개국을 돌아보는 4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답사할 때 들렀던 남유럽을 제외하고 유럽 전역을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30여개 문명을 탄생시킨 인류의 5~6000년 문명사에서 보면 유럽 문명은 가장 후발형 문명으로 그 역사는 고작 1500여년밖에 안된다. 이런 후발 문명지 유럽을 굳이 이 시점에서 답사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여러가지 가림색으로 커져서 덧칠해져 진위와 허실이 뒤범벅이 된 유럽 문명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보려는 시

도”라고 말한다. 또 “세계문명의 다종다양한 조각들이 상이한 계기를 타고 유럽대 마침내 전래의 토착문명과 더불어 시공을 초월한 모자이크 융합문명으로서 유럽 문명을 일궈낸 문명교류사의 시말을 추적해 그 본연(本然)을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책은 ‘비극적 잃어버린 위용을 되찾다:덴마크’, ‘자연의 변화를 순치하는 지혜:노르웨이’, ‘정렬복지 사회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스웨덴’, ‘창의적 중립외교로 개척해온 강소국의 여정:핀란드’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북유럽을 상징하는 이미지 중 하나로 과대평가된 ‘바이킹’ 등 문헌이나 왜곡된 역사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단국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5년간 복역하는 등 반단 한반도 지식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는 특히 북유럽 답사에서 복지사회와 평화국가로의 길을 찾는다.

시리즈로 기획된 책은 앞으로 동유럽, 중유럽, 서유럽 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참바> 2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